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부장적 틀 속의 여성 묘사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진환주*

- I. 들어가며
- II. 미디어 속 여성의 왜곡된 이미지
- III.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부장적 틀 속의 여성
- IV. 기독교적 관점
- V. 나가며

I. 들어가며

몇 년 전 KBS 아침마당의 〈부부탐구〉 프로그램의 패널로 나선 엄앵란은 갈등을 겪는 여성들에게 “참아라, 희생하라, 여우 짓을 하라, 집안에 왕은 하나여야 한다.”고 말을 했다. 또 부엌에서 가정의 행복이 요리된다는 내용의 『부엌데기 사랑』을 쓴 조양희는 동일 프로그램에서 “순종하는 것도 권리이며, 남편 앞에 무릎 꿇고 대꾸 한마디 못하는 아내도 나름대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인내·희생·지혜·순종’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훌륭한 덕목을 여성에게만 요구한다는 데 있다.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더욱이 것처럼 불평등한 요구를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패널들의 발언은 종속관계로서의 남녀관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최근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문제의식을 공유한 남성들이 늘면서 이러한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배어있다. 여전히 여성의 정계진출은 세계에서 후진상태에 있으며¹⁾, 경제독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여성은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고, 사회지도층은 대부분 남성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 중기 이후에 확립되기 시작한 가부장제 관습은 아직까지 우리 땅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것이다.

현대는 미디어시대이다. 미디어는 그 사회의 구성원의 가치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디어는 한 사회의 구성원의 관습과 사회통념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유발시킬 수 있다. 빌렘 플루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송신된 모든 것 뒤에는 ‘태도모델’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남자는 모름지기...여자는 모름지기...’식의 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형성하게 했다.²⁾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나 사회 일반이 제시하는 어떤 이미지보다도 텔레비전을 통한 이미지가 실제 사람들에게 남녀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글은 현실의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의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방영중인 <살맛납니다>와 <그래, 웃어요>를 대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이 가부장의 틀 속에 갇혀 있음

1) 김훈순·김명혜,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 전략』, 『언론과 사회』, 제12권 1996년 6월, 6쪽.
 2) 빌렘 플루서, 김성재 역, 『괴상성 예찬-매체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95쪽.

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 불평등의 묘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미디어 속 여성의 왜곡된 이미지

대중매체에서 성역할의 이미지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살펴보아도 여성과 남성들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 묘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즉, 여성을 사소하게 만들고 책망하거나 편협하게 한정하는 역할로 묘사되는 경향이다. 때문에 이러한 대중매체에 의해서 여성은 '상징적 멸절'을 당하게 된다. 반면 남성들은 그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높은 신분으로 그려진다.³⁾

특히 광고에서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성역할의 고정관념이나 그릇된 성윤리에 의해 왜곡된 여성이미지가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대체로 여성은 성적 대상자로, 가사 노동자로, 연약한 인간으로, 또는 아름다운 몸으로 그려지는 반면 남성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책임감 있고 강인한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현상은 점점 역전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 광고에서 여성의 역할에 변화의 기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외적인 미를 추구하는 여성상', '성적주도권을 가진 적극적 여성상', '전문 직업인로서의 여성상', '독립적인 여성상', '자유분방한 여성상'을 나타내는 광고들의 많아지고 있고, '가사노동자로서의 여성상', '성적인 대상으로서 장식적 역할'을 하는 광고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결

3) *Feminist Theory and Social Change*, 214쪽.

4) 정기현, 『한국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젠더표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제8호, 2007년 10월, 90쪽.

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의 대표적인 주자는 화장품 광고이다. 닳고 싶은 여성을 모델로 내세워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던 과거와 달리, 여성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오히려 꽃미남 배우를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아파트에서 한 여성에게 키스할 것처럼 몸을 기울이던 원빈은 립스틱을 꺼내 그녀의 입술에 발라준다. 이 립스틱을 구매하는 여성은 마치 원빈이 자신의 입술을 발라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앵두나무 가지에 다가선 권상우는 잎과 열매로 관을 만들어 쓴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표정을 짓고 있는 김현중도 등장한다. 이처럼 꽃미남을 내세운 광고는 그만큼 여성의 위치가 상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드라마도 많이 변했다. <대장금>은 여성의 신분으로 조선 최고 명의의 자리에 올랐던 대장금의 이야기를 담았다. 강한 집념과 놀라운 의지로 궁중 최고의 요리사가 된 한 여인의 일대기를 그렸다. <황진이> 역시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16세기 초반에 태어나, 중종·인종·명종 조를 두루 살다간 여성이다. 당시 조선사회는 신분의 제약과 남녀의 차별이 뚜렷했던 시기이다. 그 시기에 황진이는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시인·예술가·개혁자로서 시대의 아픔을 몸으로 이겨내는 여성을 다루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천추태후>는 한 단계 진보한 여성주의 드라마이다. 흔히 남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힘·용맹·투지·결단력·지도력 등은 천추태후의 몫이다. <선덕여왕>의 미실은 아예 여러 명의 남편을 두고, 여러 명의 남자 추종세력을 거느린 새로운 인물로 묘사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의 역할을 왜곡시키는 이미지 광고와 드라마는 여전하다. 심은하가 등장했던 냉장고 광고 카피, ‘여자라서 행복해요’는 ‘여자라서 행복해요’로 공공연히 패러디되었다. 가전제품이 배치된 주방은 여성만의 공간, 여성만의 주된 영역으로 묘사되었다. 구혜선이 등장하는 ‘후궁’역 광고는 아름다움이 권력임을 표방한다. 그러나 권력의 주체는 배후의 왕, 즉 남자이다. 자녀양육, 육아 용품 광고는 여성을 전면으로 내세워 여성만의 책임으로 떠맡긴다.

미국 텔레비전을 분석한 글에 의하면, 프라임 시간대 등장인물의 대다수는 남자들이다. 그나마 프라임 시간대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주로 코미디프로에 등장한다. 이는 남성들은 진지하게 묘사돼야 하고, 여성들은 반

대라는 인상을 준다. 또한 텔레비전 속의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높은 신분으로 그려지고 있고, 여성들은 사회적인 일 보다는 가족 속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로 그려진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광고의 대부분이 부엌이나 욕실의 물품에 대한 것이다.⁵⁾ 이러한 연구결과가 1970년대 있었는데, 2000년이 시작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이러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텔레비전의 광고와 드라마는 여전히 미래를 지향하기보다 지나온 사회관습의 과거를 지향하고 답습하며 보존하고 있어 보인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텔레비전은 어린 아이들에게 강력한 사회화 동인으로서 작용한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볼 때 무엇을 보는가? 아이들의 만화는 성인 쇼보다 훨씬 소수의 여성들을 포함하고, 성인 쇼에서처럼 여성 등장인물들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단지 가족 역할에 위치하는 것으로, 혹은 남성폭력의 희생자로 그리고 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관하여 텔레비전과 다른 매체에 더욱더 의존하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제한적인 이미지들은 특히 말썽이 된다.⁶⁾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체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관을 형성케 한다. 매체에서 일단 이미지가 표현되면, 실제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한 특성을 잃는다. 그래서 생각과 특성은 고정되어 버리고, 현실에 대한 단순한 인상을 준다. 더욱이 대중 매체는 일반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공통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다. 세상의 사건들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얻기를 희망하는 뉴스조차 권위적인 논평, 도덕적 충고, 희극적인 기분전환과 선정적 발표로 포장되어 있다. 뉴스에서 여성들은 기자나 논평자로서 실제보다 낮게 표시되고, 여성 기자들은 “가벼운” 뉴스나 독자의 흥미를 돋우는 이야기에 대해 보도한다.⁷⁾

5) *Feminist Theory and Social Change*, 214쪽.

6) *Feminist Theory and Social Change*, 215쪽.

이러한 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것은 ‘반영 가설(reflection hypothesis)’, ‘성 역할 학습 이론(sex role learning theory)’, ‘미디어 조직에서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 approaches to media organization)’, 그리고 ‘사회경제적 접근(socioeconomic approaches to media)’이다. 우선 이론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은 ‘반영가설’이다. 이 가설은 대중 매체가 일반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추정한다. 반영가설은 비록 대중 매체가 허위사실을 꾸미고 있다 해도 그것은 지배적인 사회적 믿음과 이미지들을 정말로 요약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성 역할 학습이론’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매체에서 반영된 가치들이 여성과 남성들에 대한 가장 보수적이고, 성차별주의자의 견해를 표현한다고 믿는다. 미디어는 성에 대한 역할 모델을 조장해왔다. 대중매체는 여성의 성공을 가로막아 왔고,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이나, 가족의 관계 안에서만 정의해 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디어 조직에서 성 불평등’이다. 비록 반영 가설과 역할 모델링 논쟁 둘 다 우리에게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순응에 대해 경고하지만, 그 어느 것도 매체에서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매체 조직 내의 성 불평등을 연구함으로써 매체 내용에서 성차별주의를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다. 여성들이 매체 조직에서 하위 지위에 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바 없다. 그들의 성차별이 있는 매체 직업에서 일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과 주요 네트워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의 기자·작가·아나운서, 그리고 관리자들에 속해 있다. 네 번째는 ‘사회경제적 접근’이다. 미디어에서 성차별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관점이 성차별주의를 미디어 조직의 자본가 구조 탓으로 돌리는 사회경제적 접근이다. 그들이 파는 제품과 일관된 이미지를 육성하는 것은 후원자의 이해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병적으로 청결에 관심이 있는 가정주부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는 그들의 제품을 팔기 위한 제조업자의 시도를 반영한다. 이

7) *Feminist Theory and Social Change*, 216쪽.

관점들은 가정에서 여성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상징을 포함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상업적 대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 자본가와 일치한다. 성 불평등 접근과 함께, 이 관점은 우리에게 매체에서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더 완벽한 이해를 준다.⁸⁾

Ⅲ.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부장적 틀 속의 여성

여성을 엄격하게 차별하고 예속시킨 가부장제가 한국의 역사 가운데 정착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한국의 고대사회의 가족 및 친족조직(bilateral kindred)은 혼인, 상속, 그리고 혈통계승을 규제하는 출자율(出自律, decent system)에 있어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양계제를 취했다. 고려시대에도 뿌리 깊은 양계친속제(兩系親屬制)의 관습은 변함이 없었다.⁹⁾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새로운 왕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조선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유교의 여러 가지 남성중심 제도가 조선 초기에는 널리 퍼지지 못했지만, 250년이 지나면서 남계중심의 관습과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립되었다. 유교의 주자학의 도덕윤리는 사대부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정착시켰다.¹⁰⁾

한국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논리와 텍스트 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분석이 시도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이다. 주로 서사분석이나 담론분석의 틀을 사용했는데, 연구의 대부분이 텍스트에 의해 재생산되는 가부장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순종적인 아내, 여성스러운 연인, 전통적인 외유내강의 가부장적 여성의

8) *Feminist Theory and Social Change*, 218-222쪽.

9) 이효제, 「한국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사회』, 제 7호, 1996년 6월, 161쪽.

10) 김진명, 「가부장 담론과 여성 억압」, 『아시아여성연구』, 제 3권 1994년 12월, 63쪽.

미덕을 내면화하고 있는 이미지를 선호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자연화하고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만들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¹¹⁾ 성별로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여성의 사회 활동을 결혼하기 전까지로 치부해 버려 여성의 저임금을 초래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에게 강제된 모성의 제도를 확대하면서 유지하는 욕망이 전 부권적, 전문화적 충동으로 변했다.

1. '살 맛 납니다'의 나옥봉 : 시녀와 같은 현모양처



이 드라마는 세계 1위의 이혼율(54%)을 가지고 있고, 매년 12만 쌍, 하루 평균 398쌍이 이혼하는 한국의 가정을 소재삼고 있다. 이 드라마는 이혼반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드라마의 기획자는 이혼을 부부당사자

11) 정영희, 『여성주의적 요구와 가부장적 질서의 동거 - 내 이름은 김삼순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8권, 2007년, 45쪽.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옛날식으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식의 전개를 하지는 않는 대신 이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세대별로 갈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부부가 등장한다. 첫째,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젠 돈이 전부가 되어 버린 결혼 10년 차의 권대기부부(홍경수·변창수)이다. 둘째, 속도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되자 전격결혼에 이르지만, 사사건건 맞지 않는, 연상연하 신혼부부(홍민수·장유진)이다. 셋째, 모두가 부러워하는 찰떡궁합, 천생연분 노부부(강풍자·홍만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 넘게 남편의 시녀로 살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황혼의 부부(나옥봉·장인식)이다.

갈등을 극복하여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 내는 것을 이 드라마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비밀이라고 믿고 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주는 '교훈'은 그래도 '살맛납니다.' 라는 것이다.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 살맛나는 가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네 번째 부부이다. 괴팍한 성격의 남편, 그리고 전형적인 현모양처인 아내. 남편은 시종일관 위압을 주고, 아내는 한결 같은 순종으로 시녀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맛나는 부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나옥봉은 천생 여자로 불릴 만큼 고운 미모에 단아한 성격까지 갖춘 순도 100%의 현모양처이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남편 비위 맞추느라 자신을 버리고 사는 인고의 나날을 보내왔다. 특히 유진을 낳고 몸이 약해 더 이상 임신이 불가하자, 자식 욕심 많은 남편은 폐경이 될 때까지 시험관 시술을 강요할 만큼 이기적이었다. 그 위협과 탄압을 온 몸으로 수용하며, 가부장의 틀 속에 갇혀 살아왔다. 덕분에 그녀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 일로 마음 속 깊이 원망이 남아있다.

나옥봉은 자신의 삶과 처지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리고 저항을 해본다. 그러나 결국 수용하고 순응한다. 그렇게 순응함으로 이 가정은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옥봉의 '덕'이 가정을 살린 셈이다. 나옥봉의 희생을 제물삼아 가정은 갈등을 극복한다. 그러나 왜 덕을 여자에게만 강조하는가?

이러한 드마라는 가부장이라는 관습과 전통적 인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래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여전히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남성의 시각에서 재구성된 여성이미지를 재생산해왔다. 여성을 약하고 수동적이며, 감성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남성에게 열등한 존재로 묘사해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 결과 텔레비전 드라마는 여성을 가부장제의 틀에 가두는 이데올로기 도구로서 기능해왔다.

2. '그대 웃어요'의 백금자 : 가족의 틀 안에서만 규정되는 존재



이 드라마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를 주고 있다.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는 다음과 같다.

너무나도 힘든 세상, 가슴 뺑 뚫리게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쉽게 벌어진 돈으로 흥청망청하는 껌테기 부자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부와 가난을 잣대로 신분차이 운운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가족, 친구, 이웃 모두가 힘들 때 어깨를 빌려주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¹²⁾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기획의도의 설명은 “가난이 준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기. 코믹과 훈훈함으로 마

12)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l_iframetype.jsp?vVodId=V0000340066&vProgId=1000555&vMenuId=1011370

음을 정화시키는 가족 재생 프로젝트. 드라마를 보면서 힘내세요! 그리고 그대, 웃어요.”로 끝을 맺는다. 결국 불편하고 불만이 많은 세상이지만, 웃으면서 넘어가자는 것이다. 경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찾거나 제도의 불평등 같은 이슈는 처음부터 이 드라마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그대, 웃어요.’라고 외치는 이 드라마에서도 가부장 틀 속에 갇혀 희생을 강요받는 여성, 백금자가 등장한다. 3대에 걸친 세 남자와 남편이 운영하는 카센터 직원까지 남자들 밥해대고 빨래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음식솜씨도 끝내준다. 그러나 억척스럽게 살아오다보니 애교도 없고, 자신을 가꾸지도 못했다. 간만에 사 입은 옷은 비싸다는 이유로 시아버지 강만복에 의해 쫓겨나는 빌미를 제공했다.

옷 하나도 마음대로 사 입지 못하는 백금자는 자신을 가꿀 수 없었고,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도 없었다. ‘여자’ 백금자가 아니라,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만 존재하는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저항을 시도한다. 며느리, 아내, 어머니 삼중의 역할에 대한 저항이다. 여성으로 존재해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나 그 저항은 인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웃음’으로 갈등을 극복해보는 것 뿐이다.

이상의 드라마에서 여성의 역할은 여전히 정형화된 성 가설을 갖고 있

다. 그것은 가부장제의 틀이다. 텔레비전은 문화의 관습을 제공한다. 매체는 새로운 체제에 저항하기보다 전통적 체제를 방어한다.

미디어는 남성과 여성들에 관한 성차별주의자 생각을 나누고,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한 강력한 원천이다. 우리가 미디어로부터 흡수하는 것은 미세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일상의 상황에서 학습된다. 그러나 미디어의 영향력과 그들이 표현하는 대중문화에 더하여 성차별주의 또한 교육의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¹³⁾

IV. 기독교적 관점

우선 일반적인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개인의 자율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뿌리에서 자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있다. 이들은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성억압을 계급, 자본주의의 산물로 본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고구조의 산물로 여성억압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엥겔스는 사유재산제를 없애면 여성억압은 사라진다고 보았다. 반면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원인이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서 연유했다고 본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입장과 가부장제 이론을 통합하여 설명하려 한다.

한편 ‘남자만이 사람이고, 젠더는 여성밖에 없다.’는 주디스 버틀러의 지적에 의해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었다. 성은 구성의 결과물이라는 이론을 내세워 기존의 고정된 여성 정체성 이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던졌다.¹⁴⁾ 버틀러는 양성에 차별적인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 바로 우리가 ‘자연적 성(natural sex)’을 상정하고 우리

13) *Feminist Theory and Social Change*, 218-223쪽.

1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서울: 문학동네, 2008), 107쪽.

의 몸을 언제나 그렇게 느끼는 데에 있다고 했다. 성의 정체성은 학습행위를 통하여 습득된다는 것이다. 성에 관한 것이 담론을 통해 결정된다는 버틀러의 주장은 신체와 성 정체성에 대한 자연 상태에 대한 모든 생각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선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예를 살펴보자.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 봉건적, 가부장적 제도 하에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부흥회 중에 공개 자백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여성들은 남성들도 참석한 모임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초이성적 종교체험이 여성들에게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다. 초기 교회 여성들의 지도력은 이런 체험과 고백을 통해 형성되었다. 부흥운동 기간 중 이루어진 종교체험과 의식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사회, 민족 차원에서 자유와 해방운동으로 연결되었다. 봉건시대 가부장적 제도의 폐해인 축첩 문제가 부흥회 기간 중 심각한 죄악으로 인식되면서 축첩 폐지현상이 기독교인 가정에서 나타났으며, 교회 안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의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 체험은 한말 민족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민족 해방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여성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과 사회, 국가와 민족에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⁵⁾

그러나 기독교 선교 100년이 넘어서는 오늘날 한국은 선교 초기의 여성해방을 이어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교회의 남녀 성도의 구조에 대해, 특히 강남의 대형교회에 대해 구미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5) 이덕주,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과 여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6호, 2007년 3월을 볼 것, 특히 68-70쪽.

근대적 고등교육의 수혜자로서 강남형 대형교회 여신도들은 남녀가 평등하게 지어졌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명제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성별 분업의 유연화도 쌍수 들어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을 담임목회자로 청빙하는 부분에서는 혼연한 동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말이 하나님의 남성됨을 입증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자연스레 수용할 만큼 열려진 해석학적 틀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하면서, 여성이 당회에 들어가는 것이나 총회 대표로 참여하는 등 소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극히 미온적이다.¹⁶⁾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중세 기독교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영혼과 육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우열을 가린 후, 전자는 후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려 한다.¹⁷⁾ 이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존재론적 평등성' 개념이 한국사회에서는 영적 차원에서만 이해되고, 정치·경제·사회 구체적 현실로까지는 적용되지 않은 왜곡 현상이다.¹⁸⁾

메릴린 프렌치는 '세계 종교는 가부장제를 표방한다. 종교는 남자의 특권을 굳히고, 남자를 결속시키는 장치로 작용한다. 그래서 신은 모두 남성인가 보다.'라고 했다.¹⁹⁾ 기독교 역시 가부장제를 표방하는 남성우월의 종교에 머무르고 있는가? 가부장의 틀 안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고린도전서 12-13장에서 찾고자 한다. 이 본문은

16) 구미정, 「강남형 대형교회 여신도들의 신앙 형태에 대한 신학윤리적 성찰」, 『한국 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제2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2008년 4월, 93쪽.

17) 유춘자, 「설교에 나타난 성차별과 가부장성」, 『기독교사상』, 2004년 11월호, 통권 제551호, 138쪽.

18) 박의경, 「한국 여성의 근대화와 기독교의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제1호 2003년 8월, 51쪽.

19) 구미정, 「오늘 여성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기독교사상』, 2008년 11월호 통권 제 599호 216쪽에서 재인용.

‘한 몸’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몸은 차이를 인식하되,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차이를 차별로 오해하면 억압과 폭력, 그리고 순응과 피해의 관계가 되어 버린다. 둘째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순간 지배와 복종의 폭력이 일어난다. 기독교는 여성에 대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남성과 여성은 함께 있을 때, 한 몸이 될 수 있다. 함께 연합하여 기쁨과 고통을 나누면서 창조의 한 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닌 돌봄과 섬김으로서의 사랑, 상대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타자 존중의 사랑,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되어 사립으로서의 사랑’²⁰⁾을 실천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소위 여성 해방론자였으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 예수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시절에 여성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주장했다고 주장한 윌리엄 핍스는 벤 위더링턴의 글을 소개하면서 여성 존중의 성경적 이론을 펼치고 있다.

예수 우리는 당시 많은 유대인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예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예수는 선교사 역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간증을 다른 어떤 동시대적인 인물들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예수는 여성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열린 자세를 취했다.²¹⁾

바울 서신이 그러하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보여주듯 성경은 가부장

20)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2005), 197-210쪽.

21) 윌리엄 E. 핍스, 신은희 역, 『예수의 섹슈얼리티』, (서울: 이룸, 2006), 220쪽.

적 권위 보다 남녀평등, 혹은 여성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기독교의 진리로 이해하고 학습하며, 나누어야 할 것이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미디어 속의 왜곡된 여성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방적이든 여성 억압 이미지가 사라지긴 했어도 여전히 미디어는 여성을 왜곡된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었다. 특히 텔레비전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가부장적 틀 속에 갇혀 있는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음을 예로 들어 비판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과 억압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초기 한국 기독교가 여성의 권위 신장에 미친 영향과 그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성경은 남녀 차별이 아닌 평등과 한 몸을 지향한다는 것을 고찰해보았다.

앞으로 시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포스트 모던시대이다. 박양식은 영국의 콜린그린의 분석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다가올 문화적 상황은 포스트 기독교세계(post-Christendom), 포스트 세속 세계(post-secular world), 포스트 식민지적 세계(post-colonial world), 포스트 개인주의적 세계(post-individualistic world)이다.²²⁾

첫째, 포스트 기독교세계란, 서구교회가 기독교 세계의 혜택을 누렸지만, 20세기의 상황은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포스트 세속 세계란, 예전에는 세속주의를 경계했지만, 이제 세속은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으로 인정하게 되었

22) 박양식, 「문화참여를 통한 선교」, 『기독교학대학원소식』, 제10권 제2호, 2009년 11월 23일, 통권 제 20호, 9쪽.

다는 것이다. 셋째, 포스트 식민지적 세계관, 과거 서구교회가 제국주의 하에 발전하였지만, 오늘날 교회의 제국주의 발상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개인주의적 세계관, 서구의 개인주의가 근대 세계를 형성하는 핵심논리였지만, 이제 개인은 의존적 주체 간에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부분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가부장적인 과거의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구원의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어렵다. 이제 한국교회는 달라져야 한다. 특히 여성도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조명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미정의 지적과 제안을 귀담아 들어보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의 바탕에 여신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오늘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질적 성숙의 동력으로 여신도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 향후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부장적 체질을 개선하는 데 에너지를 모으지 않으면, 시민대중의 반감과 외면을 돌이킬 방도가 없겠다... 우선 가능하게는 목회자 재교육이나 계속 교육 등 의식화 작업을 통하여, 그리고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 교수진과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여성신학과 어떻게든 접촉하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성목사와 여성장로 등 여성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고립된 여신도들이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여성신학자들과 접촉하도록 매개하는 조정자가 될 수 있다. 여성리더들은 기존의 남성 리더십을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 창조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²³⁾

남성과 여성은 모험·강함·지능·일·책임감·의무·가족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 속에 평등하게 등장해야 한다. 여성을 직업으로부터

23) 구미정, 『오늘 여성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기독교사상』, 2008년 11월호, 통권 제 599호 224쪽.

터 소외시켜서는 안 되며, 지도자적 지위, 창조적 지위, 그리고 행동적인 지위들을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는 사회적 견해를 조장시키면 안 된다. 하지만 기독교가 성차별과 여성 억압이라는 가부장적 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가 진정으로 예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녀 차별, 가부장적 틀을 제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원리가 판을 치는 이 불온한 시대에 참으로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내재적 초월의 미학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토대로 삼을 패러다임은 성장과 성공이 아니라, 작음과 낮아짐, 나눔과 섬김, 보살핌과 살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²⁴⁾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고 실천하고 성경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보여 주시고 외치셨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겠다.

24) 구미정, 『강남형 대형교회 여신도들의 신앙 형태에 대한 신학 윤리적 성찰』, 『한국 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제2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2008년 4월, 94쪽.

〈국문 초록〉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부장적 틀 속의 여성 묘사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본 논문은 미디어 속의 왜곡된 여성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방적이었던 여성 억압 이미지가 사라지긴 했어도 여전히 미디어는 여성을 왜곡된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가부장적 틀 속에 갇혀 있는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음을 예로 들어 비판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과 억압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초기 한국 기독교가 여성의 권위 신장에 미친 영향과 그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성경은 남녀 차별이 아닌 평등과 한 몸을 지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모험·강함·지능·일·책임감·의무·가족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 속에 평등하게 등장해야 한다. 여성을 직업으로부터 소외시켜서는 안 되며, 지도자적 지위, 창조적 지위, 그리고 행동적인 지위들을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는 사회적 견해를 조장시키면 안된다. 하지만 기독교가 성차별과 여성 억압이라는 가부장적 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가 진정으로 예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녀 차별, 가부장적 틀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Key words : 미디어, 가부장제의 틀, 성 역할의 왜곡, 남녀평등, 기독교 여성관

〈Abstract〉

Christian view of women description in patriarchal system on drama

Jin, Hwan-Joo

This study deals with the distorted image of woman in the mass media. We can see that the mass media is describing women in the distorted point of view even though it disappeared a lot as time passes. I commented on the women especially as the one who is in the frame of patriarchy in Drama on television. And I presented the Christian view about such a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It is about the fact that the early Korean christianity worked to raise women's right and that it didn't affect to the whole society. Also it is about how the bible is for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Therefore men and women should be appeared equally in the story about advantage, power, ability, profession, responsibility, duty, family etc. We should not exclude women from the profession and promote the view that the position of leadership, creativity and activity is only of men in the society. But in reality the christianity is not free from the frame of the Patriarchy which is about sexual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of women. Christianity should work to eliminate the frame of the Patriarchy to accomplish the ideal of Jesus. This is a task for the christians who experienced God's love.

Key words: mass-media, Patriarchal frame, distortion of sexual role, equality, christian view of women

〈참고문헌〉

단행본

-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김선남, 김홍규, 『텔레비전과 페미니즘』, 서울: 범우사, 2002.
-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손덕수, 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서울 : 창작과비평사, 2000.
- 빌렘 플루서, 김성재 옮김, 『피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윌리엄 E. 핏스, 신은희 역, 『예수의 섹슈얼리티』, 서울: 이룸, 2006.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파주: 문학동네, 2008.
- Barbara L. Marshall, *Engendering modernity : Feminist Theory and Social Change*, Boston :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c1994

학술논문

- 구미정, 「오늘 여성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기독교사상』, 2008년 11월호 통권 제 599호 214-225쪽.
- 구미정, 「강남형 대형교회 여신도들의 신앙 형태에 대한 신학 윤리적 성찰」,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제2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2008년 4월.
- 김광옥, 하주용,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한국언론학보』, 제51권 2호 2007년 4월 453-478쪽
- 김미정, 「미디어 속의 여성 - TV광고를 통해 본 수행적 젠더성」, 『비평문학』, 제32호 2009년 6월 91-118쪽
- 김진명, 「가부장담론과 여성억압」, 『아시아여성연구』, 제3권 1994년 12월 61-94쪽
- 김훈순 김명혜,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전략」, 『언론과 사회』 제12권 1996년 6월 6-50쪽
- 강남순, 「근대성,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학과 세계』, 제44권 2002년 470-494쪽

- 박의경, 「한국여성의근대화와기독교의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제1호 2003년 8월 31-56쪽
- 양문희 강형철,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연구」, 『한국 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론학회 2005년 봄철정기학술대회 2005년 5월 247-248쪽
- 오수정, 「미디어가 만든 여성, 여성이 말하는 미디어」, 『신문과방송』, 제337호 1999년 1월
- 유춘자, 「설교에 나타난 성차별과 가부장성」, 『기독교사상』, 2004년 11월호 통권제 551호 136-143쪽
- 이덕주,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과 여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6호 2007년 3월 39-74쪽
-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제7호 1996년 6월 160-176쪽
- 정기현, 「한국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젠더표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제8호 2007년 10월 71-110쪽
- 정영희, 「여성주의적 요구와 가부장적질서의 동거 - 내 이름은 김삼순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8권 2007년 41-71쪽
- 하효숙, 「역사, 젠더 그리고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 『미디어, 젠더&문화』, 제2호 2004년 10월 71-117쪽
- 홍석경,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하는 가족 관계 속의 여성」,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8 한국 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 대회, 1998년 5월, 181-197쪽.